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화해의 윤리 공동체를 향하여

- 미학적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과제

박삼경

서울신학대학교 조교수, 기독교윤리학

I. 들어가는 말

21세기 한국사회의 키워드는 통일이다. 그 통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통일 논의에 있어서 “무엇이 올바른 통일인가?”를 묻는 진(眞)에 관한 것과 “어떻게 하여야 통일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묻는 선(善)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왜 통일은 아름다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남북통일의 아름다움 측면을 부각시키는 미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 미학이란 감각을 통한 인식의 학문으로서 알렉산더 바움가르텐(Alexander Baumgarten)에 의해 처음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었다.²⁾ 바움가르텐은 미학을 아름답게 사유하는 기술이라고 부르며 그 목적은 아름다움의 성취라고 보았다. 현대신학에서도 폰 발타자(Hans Urs von Balthasar)는 신학 내용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비에 관한 아름다운 영적인 진리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미학적

1) 유경동(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은 미학적 남북통일을 말한다. 유경동, 『남북한 통일과 기독교의 평화』(서울: 나눔사, 2012), 257-278.

2) 앞의 책, 258. 근대미학의 효시로 독일의 바움가르텐보다 이탈리아의 비코로 보는 설이 있다. 오병남, 『미학 강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218.

인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한다.³⁾ 발타자는 미학적 차원의 신학은 단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모든 개념을 넘어 하나님의 신비의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말한다.⁴⁾ 이런 미학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화해의 현실을 전제로 한다. 즉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랑의 아름다움이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원수된 것을 사랑으로 극복함으로써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는 아름다움, 미(美)를 드러내신 것이다.⁵⁾

본질적으로 기독교 중심적인 미학의 측면에서 한국사회가 통일문제를 관심 갖고 볼 때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데올로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으로 인해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남북한 곳곳에 아직도 분단이라는 상황 아래에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과거 분단 후 60년 동안 체제이데올로기 유지라는 명목으로 서로 간의 증오와 적대감으로 서로의 긴장과 불신을 키워왔다. 더욱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사회의 정치권력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일인 독재를 하면서 북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걸림돌이 바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괴물들이다.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그래도 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도 이데올로기만은 배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분단 이후 남북한 이데올로기 체제는 고착된 것처럼 보인다. 특별히 한국전쟁 이후 분단의식은 남북한의 모든 삶의 영역,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생활방식에서 내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남북한이 휴전선을 맞대고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는 한반도에서 미학적 통일의 과제를 위해서 이데올로기의 양면성인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칼 마르크스(Karl Marx)와 알로이시우스 피에리스(Aloysius Pieris)를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신앙과 이데올로기에 관한 문제는 후안 루이스 세군도(Juan Luis Segundo)의 이론을 통해 알아본다.

3) Richard Viladesau/손호연 역, 『신학적 미학』(오산: 한국신학연구소, 2001), 43.

4) 앞의 책, 44.

5) 유경동, 『남북한 통일과 기독교의 평화』, 261.

이는 신앙이 목표하는바 그 참된 세계로 현실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의 긍정적인 면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데올로기와 신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화해의 윤리가 미학적인 차원에서 분단된 대한민국의 갈등의 상황을 해결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프락시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본다. 특별히 화해윤리에 관해서는 아다 마리아 이사시-디아즈(Ada Maria Isasi-Diaz)의 작품을 통해 그녀의 화해패러다임을 알아본다. 그리고 남북한의 화해 통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이사시-디아즈의 화해윤리를 한국의 정치현실과 경제체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아울러 살펴본다. 결론으로 화해 없이 한반도에는 진정한 아름다운 통일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김민기의 <작은 연못>이라는 글로 마무리한다.

II. 이데올로기 이해

1.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이데올로기 이해

역사적으로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데스튀트 드 트레이시(Desstutt de Tracy)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관념들에 관한 한 학문”(a science of ideas)이라고 말했다.⁶⁾ 관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본다’ 혹은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이데올로기란 어떤 사물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 관념, 견해, 그리고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의 문자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만 이데올로기의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대체로 오늘날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의 이해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을 뜻한다.⁷⁾ 즉 거짓된 상상에 의한 왜곡된 이념체

6) Aloysius Pieris, S. J., *An Asian Theology of Liberation* (Maryknoll: Orbis Books, 1992), 25-26.

7)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Selected Works in One Volum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0), 700.

계로 보고 있다.⁸⁾ 이 같은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는 현 정치적 구조의 기득권(status quo)을 보존하고, 옹호하고, 강화시키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는 기존체제의 현상유지를 위한 법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의 잘못된 억압적인 관계를 정당화한다. 마르크스는 문화와 철학은 물론 종교까지도 성격상 이데올로기적인 경향이 있다고 본다.⁹⁾ 이데올로기는 인간 사회의 억압적인 현 상태에 대한 미묘한 방어기제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가리켜 칼 만하임(Karl Mannheim)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를 구별함으로써 더욱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선명하게 밝혀준다.¹⁰⁾ 이데올로기는 체제긍정적인 허위의식인 반면 유토피아는 체제부정적인 허위의식이다.¹¹⁾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를 가치중립의 개념을 가진 정신의 상징적인 체계를 의미하지 않는다.¹²⁾ 즉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를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가톨릭 신학자인 그레고리 바움(Gregory Baum)은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그는 말한다. 마르크스주의 전문용어를 보면, 이데올로기는 항상 무언가 잘못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진리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지배그룹의 권력과 특권을

8)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0년대 중반에서 1890년대 초엽까지 50년 동안 이데올로기 문제를 연구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데올로기를 연구하면서 그 의미도 다양하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종교, 철학, 정치에서 인간의 자기 소외의 표현과 형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정신과 이념이 역사와 현실을 만들고 지배한다는 정신 지배의 환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 분업에서 비롯된 역사의 현실적 추진력의 전도된 파악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한 특정한 역사적 생산과 재생산의 영원한 외견상 자연적인 구조로서 사회적-경제적 과정의 사회적으로 필연적인 반응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필연적인 허위의식을 가리키기도 함.” 전태국, 『지식사회학-지배, 이데올로기, 지식인』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7), 119-120.

9) Gregory Baum, *Religion and Alienation* (NY: Paulist Press, 1975), 34.

10) 칼 만하임은 이데올로기의 존재 구속성(제약성)을 강조하며 지식사회학을 창시한 독일의 사회학자이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특수적인(particular) 이데올로기와 총체적인(total) 이데올로기로 구분한다. 그는 특수적인 이데올로기는 개인심리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허위의식이라면 총체적인 이데올로기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허위의식으로 이해한다. 카를 만하임/임석진 옮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서울: 김영사, 2012), 160-252.

11) 한완상, 『지식인과 허위의식』 (서울: 현대사상사, 1993), 20.

12) Baum, *Religion and Alienation*, 34.

정당화시켜 주는 정신의 상징적인 체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 이는 종교, 전통, 자연. 그리고 신에 의해 정당화된 필연성으로서의 사회적인 특별한 질서를 수용하게 해주는 무의식적인 합리화라고 볼 수 있다.¹⁴⁾ 이런 면에서 보면,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를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는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비도덕적인 행동 배후에 점검되지 않은 이론 혹은 현상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정당화의 역할을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데올로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마르크스는 종교를 하나의 이데올로기 또는 이데올로기의 한 요소로서 본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종교, 철학 그리고 가치들은 생산을 위한 물질적인 과정들의 반항들이다.¹⁶⁾ 이런 생산을 위한 과정들의 합의 방식은 노동자들에게는 억압적이고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주는 처리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소수 엘리트들이 그들의 기득권 유지와 노동자들에게는 조금의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합의 방식의 사회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이데올로기는 가진 자들(the haves)이 가지지 못한 자들(the haves not)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또한 종교는 가진 자들과 소수 엘리트들의 현상유지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마르크스는 본다. 사회 권력자들과 소수 엘리트 지배계층의 현상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계층에게는 억압이 되는 그 체제들을 영속케 하는 역할을 종교가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 비판 없이 종교를 순수하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주장한다.

2. 알로이시우스 피에리스(Aloysius Pieris)의 이데올로기 이해

알로이시우스 피에리스는 스리랑카의 신학자로서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계획된 (programmatic) 세계관으로 말한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정치적 질서 안에서 투쟁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미래를 포함한다고 그는 본다. 무엇보다 먼저 이데올로기를 세계관으로서 묘사한다. 즉 이

13) 앞의 책, 34.

14) Pieris, *An Asian Theology of Liberation*, 26.

15) 앞의 책, 26.

16)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On Religion* (N.Y.: Schocken Books, 1974), 77.

세계와 관련되고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체계 혹은 틀(*framework*)로 말한다. 그에게 세계관이란 계획적인 것이다. 이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변화와 함께 사회-정치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을 포함하는 것 전부를 말한다.¹⁷⁾ 세계관 혹은 이데올로기의 목적은 세계의 현존하는 무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추상적인 사유가 아니라 그것은 부정의한 구체적인 사회-정치적인 구조들을 변혁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전망을 포함한다. 이데올로기는 단지 어떤 생각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적인 진보를 가져오는 프로그램들에게 헌신을 요구한다.¹⁸⁾ 이데올로기는 정신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특별한 목적들을 성취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단지 비전만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해야 할 것에 관한 하나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는 쉽게 잘 갖춰진 사회-정치적인 프로그램 혹은 기획으로 변형될 수 있다.

피에리스는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인식론적인 구조를 갖춘 세계관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를 통해 다소간의 세상과 인간 경험의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피에리스의 이데올로기 이해는 종교의 이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피에리스는 이데올로기와 종교는 똑같이 해방의 지평(*the horizon of liberation*)을 말하고 있지만 이데올로기는 초월적인 차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근본적으로 종교와 다르다고 주장한다.¹⁹⁾ 피에리스는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차이점은 절대적인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데올로기는 절대적인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반면에 종교는 그것을 인정한다.²⁰⁾ 이데올로기의 주된 목표는 이 세상의 진보다. 반면에 종교는 현 세상뿐만 아니라 전적인 타자와 절대적인 미래까지도 다룬다. 거기서 마지막 해방의 지평은 전적인 타자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²¹⁾

피에리스는 이데올로기와 종교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종교에 의해 제안되는 절대적인 미래(*absolute future*)는 이

17) Pieris, *An Asian Theology of Liberation*, 25.

18) 앞의 책, 25.

19) 앞의 책, 25.

20) 앞의 책, 25.

21) 앞의 책, 25.

세상에서 기대해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한다. 그는 절대적인 미래가 개인적인 구원의 영역으로써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구조들을 통해서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데올로기가 바로 사회적 구조들, 전략들 그리고 기관들에게 주로 종교가 제공하는 절대적인 미래를 제공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데올로기는 이 세상의 미래에만 관심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데올로기는 자기를 더 명확하게 해줄 진리로 인해 항상 초월해야 하기 때문이다.²²⁾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 안에 이미 초월될 내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²³⁾

피에리스의 계획된 세계관으로서의 이데올로기 이해를 보면, 피에리스는 철저히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사회란 단지 인간들의 총체적인 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²⁴⁾ 개인의 변화가 곧 사회의 구조들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도출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개인들이 바라는 완전함에 도달하려는 개인적인 노력들을 제압한다고 말한다.²⁵⁾ 그러므로 그는 정의로운 편에 선다는 것은 사회와 관련된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의 개인을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피에리스의 이데올로기 이해는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의 이해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말해주고 있다면 피에리스는 이데올로기가 해방을 추구하는 세계관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잘 말해주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는 부정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측면 둘 다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허위의식으로 변할 수 있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해방을 위한 순기능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인과 집단사회가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2) 앞의 책, 24. 피에리스는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듭 반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23) 앞의 책, 24.

24) 앞의 책, 25, 27-28.

25) 앞의 책, 28.

3. 후안 루이스 세군도(Juan Luis Segundo)의 이데올로기와 신앙과의 관계

라틴 아메리카 신학자인 후안 루이스 세군도는 이데올로기의 개념에 관해 광범위하게 연구했다.²⁶⁾ 세군도는 이데올로기를 인간 행동의 선상에서 혹은 어떤 선택을 위한 필요한 배경으로서 봉사할 수단들과 목적들의 체계로 생각한다.²⁷⁾ 이데올로기는 모든 사람이 어떤 대가와 노력을 해서라도 찾아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전제들과 관련을 갖고 있다고 그는 본다. 세군도는 이데올로기를 가치들과 상호 연관된 논리적인 체계로 본다.²⁸⁾

세계교회협의회는 이데올로기를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민족주의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앙의 관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남겨놓고 있다.²⁹⁾ 그렇다면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앙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것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 이런 면에서 세군도는 신앙과 이데올로기 관계에 집중한다. 그의 책, 『신학의 해방』(*Liberation of Theology*)에서 세군도는 직접적으로 신앙과 이데올로기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³⁰⁾ 그의 답변은 피에리스의 이데올로기와 종교를 구별하는 선상에서 따라간다. 이데올로기는 신앙처럼 하나의 절대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반면에 이데올로기는 늦은 성숙의 과정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과정들 안에서 역사적인 요구들과 필요성들에게 적응한다.³¹⁾ 세군도는 이데올로기란 절대성의 특징들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오히려 역자로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 춤을 추듯 이데올로기는 역사안의 모든 상황들과 결합되어 있다고 말한다.³²⁾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데올로

26) Juan Luis Segundo, *Liberation of Theology* (Maryknoll: Orbis Books, 1976), 102; *Faith and Ideologies* (Maryknoll: Orbis Books, 1984), 16.

27) Segundo, *Liberation of Theology*, 102.

28) 앞의 책, 105.

29) 반 데어 벤트/연규홍 옮김, 『WCC의 에큐메니칼 신학』(서울: 동연, 2013), 333.

30) Segundo, *Liberation of Theology*, 102.

31) 앞의 책, 102.

32) 앞의 책, 102.

기는 그 가치의 상대성에 관하여 논쟁되지만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들을 지니고 산다.³³⁾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이데올로기와 신앙을 혼동하게 되는 이유이다.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과 역사 안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의 기능을 한다고 세군도는 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개념과 계속 변하는 역사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사이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개념과 역사 안에서 겪는 참된 삶의 문제들 사이에 다리를 세워야 한다. 이 다리, 즉 일시적이고 필연적인 수단들과 목적들의 체계가 바로 이데올로기라고 세군도는 말한다.³⁴⁾ 신앙은 시대적 상황에 의해 제한되는 이데올로기라는 옷을 입지 않고는 인간에게 이해되거나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역사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에는 필연적으로 시대적 제약을 받는 이데올로기적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³⁵⁾

세군도는 이데올로기에 관한 그의 이해를 예증하기 위해 성경에서 그 사례를 인용한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고대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적들을 전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리고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이해하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적들을 전멸하는 것은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비판적인 숙고를 했던 안했던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채택한 이데올로기이다.³⁶⁾ 그들의 신앙은 영원하고 특별한 것이지만 그들의 신앙이 선택한 이데올로기는 또 다른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³⁷⁾ 그들의 신앙은 그들에게 절대자를 만나게 하지만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은 것에 기초는 하지만, 상대적인 것이다. “신앙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이데올로기라는 상대적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는

33) 앞의 책, 107.

34) 앞의 책, 116.

35) 고재식 편저, 『해방신학의 재조명』(서울: 사계절, 1986), 187.

36) Segundo, *Liberation of Theology*, 116.

37) 앞의 책, 116.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³⁸⁾ 신앙은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역사한다. 이데올로기는 신앙에 의존한다. 이데올로기와 신앙은 다르지만 그들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세군도는 신앙과 새로운 역사적인 상황을 연결해주는 한 가능한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 걸맞는 복음의 메시지에 의해 세워질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현 상황과 신앙 사이에서 기능할 다리를 만드는 것, 즉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창조성을 요구한다.³⁹⁾

세군도는 이데올로기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⁴⁰⁾ 이데올로기 없는 신앙은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신앙, 이데올로기, 그리고 행위는 각각의 독특한 역할이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이 채택한 이데올로기의 임무는 단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신앙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성숙된다고 본다.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참된 해방의 임무를 양심적으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이다.⁴¹⁾

신앙과 이데올로기가 따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은 이데올로기적인 경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적인 도덕적인 결정을 넘어서서 사회정의 혹은 정치적인 문제들과 신앙이 연관될 때에는 정말로 신앙은 성격상 이데올로기적이 된다.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신앙도 구체적인 상황을 바꾸는 혹은 개혁하는 전략과 관련된 프락시스-지향적인(praxis-oriented) 것이 된다.

신앙과 이데올로기의 상호관련성은 프락시스 차원뿐만 아니라 개념차원이나 설명하는 차원에서도 연관을 갖는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와 신학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신앙의 설명으로서의 신학은 신앙이 계속 살아 있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²⁾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역사적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질문한다는 것은 어떤 의심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심은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상부구조와 특별히 신학에 그리고 성경에까지도 적용해야 한다고 세

38) 고재식 편저, 『해방신학의 재조명』, 199.

39) Segundo, *Liberation of Theology*, 117-118.

40) 앞의 책, 121; Segundo, *Faith and Ideologies*, 106-110.

41) Segundo, *Liberation of Theology*, 122.

42) 앞의 책, 25.

균도는 말한다.⁴³⁾

신앙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신앙은 절대성과 초월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데올로기는 상대성과 역사성을 말하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인 것 같지만, 세균도는 서로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데올로기가 또한 상호보완적인 존재양식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⁴⁴⁾ 사람이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다면, 이데올로기는 육체의 필수품이고 신앙은 정신의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세균도는 신앙과 이데올로기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말하면서 서로의 배타적 관계의 극복을 하나님 나라 사상과 참여적 실천(praxis)이라는 관점에서 찾고 있다.⁴⁵⁾

III. 화해의 윤리 – 참여적 실천(프락시스)

신앙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데올로기 체제가 다른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 상황에서 신앙인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So what must we do?” 행 2:36-8).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신앙인들에게 남북의 갈등관계에서 어떻게 남북의 화해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실천적 차원을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인 화해를 위한 윤리가 분단된 대한민국 상황에서 갈등을 풀 수 있는 미학적인 새로운 프락시스가 된다고 본다. 이 면에서 아다 마리아 이사시-디아즈(Ada Maria Isasi-Diaz)의 화해의 패러다임을 알아본다.

아다 마리아 이사시-디아즈는 쿠바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랐다.⁴⁶⁾ 부모의 정치적 망명으로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 유니온 신학교(Union Theo-

43) 앞의 책, 25.

44) 고재식 편저, 『해방신학의 재조명』, 199.

45) 앞의 책, 200.

46) 아다 마리아 이사시-디아즈(Ada Maria Isasi-Diaz, 1943년 3월 22일-2012년 5월 13일)는 *mujerista* theology를 최초로 주장하면서 쿠바계 미국인으로 히스패닉(Hispanic) 여성들을 위한 신학을 펼쳤다. 그녀의 대표적인 저술들은 다음과 같다. Ada Maria Isasi-Diaz, *Mujerista Theology* (Maryknoll, NY: Orbis Books, 1996); *La Lucha Continues: Mujerista Theology* (Maryknoll, NY: Orbis Books, 2004); “Reconciliation: A Religious, Social, and Civic Virtue,” *Journal of Hispanic/Latino Theology* (May 2001), 5-36.

logical Seminary)에서 철학박사(Ph. D.)를 받고, 뉴저지 드루대학(Drew University)에서 기독교윤리학 교수로 봉직하면서 정의의 중심에 화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화해 패러다임을 말한다. 특별히 그녀가 화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체험과 무관하지 않다. 그녀의 고향인 쿠바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망명하여 미국에 사는 쿠바계 미국인들과의 분리된 삶의 경험 가운데에서 그녀는 화해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사시-디아즈는 화해는 무엇보다 공동선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기반으로 공동의 미래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화해가 없다면, 즉 이 세상의 분리된 것에 치유가 없다면, 거기에는 정의가 있을 수 없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화해의 일은 미래를 함께 세워가는 것에 헌신하도록 하는 결속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화해와 연대감은 공동체의 정의를 위한 일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⁴⁷⁾ 나누어진 공동체와 사람들이 있는 한 참다운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사시-디아즈는 다름(differences)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화해의 패러다임을 시작한다. 그녀는 다름에 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할 필요를 주장한다.⁴⁸⁾ 이사시-디아즈는 다름을 긍정적인 면(positive)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갈라진 틈을 치료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며 거기에는 사람들 사이에 함께 연대할 가능성도 없게 된다는 면에 그녀는 주목한다.⁴⁹⁾ 그녀는 다름과 다양성을 서로의 관계를 분리하고 반대하는 요소들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서로의 관계들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⁵⁰⁾ 이런 중요한 인식이 없는 한 우리는 진정한 화해자들이 될 수 없다고 한다.⁵¹⁾

화해의 일이란 현재와 미래의 시간동안 사람들의 창조적인 반응을 위한 기초 공사를 마련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의 책임에 관심을 갖

47) Ada Maria Isasi-Díaz, *La Lucha Continues: Mujerista Theology* (Maryknoll, NY: Orbis Books, 2004), 219.

48) 앞의 책, 223.

49) 앞의 책, 223.

50) 앞의 책, 223.

51) 앞의 책, 223.

는다.⁵²⁾ 화해란 과거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관련된 것이다. 화해는 현재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의해 정확히 미래에 집중하는 한 과정이다.⁵³⁾ 화해란 미래를 건설하는 부분일 때에만 과거를 보는 것이다.⁵⁴⁾ 화해란 과거에 집중해 있는 복수, 보상, 그리고 보복을 넘어서야 한다.⁵⁵⁾ 이사시-디아즈는 과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야기 시켰던 잘못된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를 열고 그들의 아픔을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고통을 준 개인적인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지 말자는 결정이나 혹은 보복을 요구하는 일 대신에 화해의 정신이 우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⁵⁶⁾

이사시-디아즈는 공통의 미래를 세워가는 일은 대화의 과정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⁵⁷⁾ 대화 안에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사실과 경험 그리고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세계관들로부터의 배움이 필수적이다.⁵⁸⁾ 그녀는 말한다. 첫째, 대화하는 사람들은 공통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경험들이 각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으로 부터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을 배우려고 대화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에서부터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이해에 있어 긍정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이해가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⁵⁹⁾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연관성들에 관해 배우는 것이 화해의 과정 안에서 중요하고 실행가능한 첫 발걸음이다. 이사시-디아즈는 대화는 화해의 프락시스라고 주장한다. 대화는 공통 미래를 위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더욱 알아가면서 서로 관계가 풍

52) 앞의 책, 224.

53) 앞의 책, 224-225.

54) 앞의 책, 233.

55) 앞의 책, 233.

56) 앞의 책, 234.

57) 앞의 책, 230.

58) 앞의 책, 231.

59) 앞의 책, 231.

요롭게 되고 서로의 관계를 지속시켜 주기 때문이다.⁶⁰⁾

이사시-디아즈는 화해는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시민의 덕이라고 말한다.⁶¹⁾ 종교적인 덕으로서, 화해란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행동이다.⁶²⁾ 즉 화해는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특별한 사랑의 한 형태이다.⁶³⁾ 그녀는 화해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사명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한다. 교회의 사명인 화해의 일에 교회가 얼마나 관심 갖고 그 화해의 일에 우선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녀는 말한다.

사회적인 덕으로서 화해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반대하게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화해는 진정 인류 사회의 본질적인 특성인 친목(sociability)하며 살기 위하여 요구되어 진다.⁶⁴⁾ 이사시-디아즈는 미국 사회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면서, 시민의 덕으로서 화해를 고려한다. 미국 사회가 다름을 존경하는 것에 관한 도덕적 책무의 회복 또는 창출을 일으키는 시민의 덕으로서의 화해를 말한다.⁶⁵⁾ 미국 안에서 시민의 덕으로서 화해는 냉정한 겸손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화해는 세상 나라들과 함께 공동의 이익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세계 미래를 위하여,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갈라진 틈을 치유하는 것이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시민의 덕으로서 화해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⁶⁶⁾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시민의 덕으로서 화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성, 문화 그리고 화해의 정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사시-디아즈는 주장한다. 화해의 영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크리스찬에게는 서로를 향한 화해의 태도와 행위가 없는 한 하나님과 연관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방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해의

60) 앞의 책, 231.

61) 앞의 책, 227.

62) 앞의 책, 228.

63) 앞의 책, 228.

64) 앞의 책, 229.

65) 앞의 책, 229.

66) 앞의 책, 229.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를 향하여 화해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요구하신다.⁶⁷⁾

이사시-디아즈는 또한 화해의 문화를 제안한다. 화해의 문화는 우리에게 가능한 한 모든 것으로 미움, 반대 그리고 소외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방, 대화 그리고 대적과 배제에 기초하지 않은 다름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촉진시키고 함양시키는 것을 말한다.⁶⁸⁾

화해의 덕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어떠한 역경의 환경에서도 화해의 신비성을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이사시-디아즈는 주장한다. 화해의 신비성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선취해야 할 세계가 어떠한 해야 하는 가를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로 함께 하나로 서는 방법, 서로를 묶어주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시키는 방법,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사회가 되는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⁶⁹⁾

이사시-디아즈의 화해 패러다임은 화해란 미래에 관한 것이며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서로의 다름을 좋고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별히 대화는 화해의 프락시스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화해를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시민의 덕으로 함양하며 화해의 분위기를 촉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미래의 공유된 꿈을 함께 세워가는 것에 화해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해 준다. 화해는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정착하기 위한 공동의 미래의 남북통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프락시스로 본다. 남북의 이데올로기 넘어서 서로 인정하고 과거의 책임보다 미래의 건설적인 평화 공동체를 일구어나갈 수 있는 노력은 화해의 윤리를 통하여 더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IV.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화해 윤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미국 뉴저지에 있는 드루대학교의 아시아 신학 교수인 웨슬리 아리아라자(Wesley Ariarajah)는 “이데올로기의 정치”로부터 “정체성의 정치”로

67) 앞의 책, 235.

68) 앞의 책, 235.

69) 앞의 책, 235.

의 전이를 말한다.⁷⁰⁾ 제3세계 신학들이 희생자의 연대에 주목했지만 희생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지는가 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정체성의 정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특별히 남북통일에 있어 남북한 양자는 화해윤리 공동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남북한의 화해윤리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이루기 위하여 이사시-디아즈가 말하는 화해윤리를 한반도의 정치현실과 경제체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이사시-디아즈의 화해윤리의 키워드는 다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그녀는 다름을 서로의 관계를 반대하는 요소들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서로의 상호 관계들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다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존중하는 것으로써 이는 남북한의 통일이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나 북한의 공산주의체제 중에서 양자택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각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평화로운 통일을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차이 때문에 통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체제 때문에 미래의 공공선을 위한 상호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 자유와 경쟁을 위주로 하는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길은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길임을 볼 수 있다. 다름을 존중하며 남과 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화해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사시-디아즈는 화해를 시민의 덕으로서 함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말한다. 화해란 함께 공동의 이익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즉 남북한 통일의 화해란 남북한의 공동의 이익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개성공단 국제화, 금강산 관광, DMZ를 평화공원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부산에서 런던까지의 유라시아 철도사업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 등은 남북한의 통일을 화해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70) Wesley Ariarajah, "The Challenge of Building Communities of Peace for All: The Richness and Dilemma of Diversities," *The Ecumenical Review*, 57/2(April 2005), 124.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역경의 환경에서도 화해의 신비성을 진작시키는 것이다. 화해의 신비성은 서로 함께 하나로 서는 것과 서로를 묶어주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시키는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북한은 물론 주변의 나라들과도 공동의 이익을 세우는 것이 동북아 평화를 조성하는 일과 화해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종교적인 덕으로서 화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화해의 영성을 이사시-디아즈는 말한다. 화해의 하나님은 서로를 향하여 화해하는 열린 태도를 가지기를 요구하신다. 특별히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주의를 기독교적 이념과 체계로 보는 반면, 공산주의를 무신론적이고 반종교적이라 믿으면서 반공이 곧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포로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단순한 흑백논리에 함몰됨으로써 상대방의 가치와 입장을 배려하지 못할 때 화해의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냉정한 겸손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화해의 일에 매진해야 한다. 미가서 6:8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화해의 영성이란 겸손함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화해시키는 행동을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다.

이사시-디아즈에 따르면, 대화는 화해의 프락시스라고 주장한다. 아름다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북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 남북 대화는 서로의 협상을 통한 갈등해결을 수행하는 일이다. 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 문화교류나 경제협력이 더욱 공고하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 특별히 대북 지원은 일부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차원에만 맡길 수 없고 국가에 의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물꼬가 이어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쉽지 않지만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도록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면서 동북아 평화 체제를 구축해 가는 것이 남북의 화해 윤리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아가

는 길이다. 더욱이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속 가능한 화해운동으로 그리고 평화운동으로 동력화시키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V. 나가는 말

21세기 한국의 신앙인들의 최대과제는 통일이다. 남북한 서로간의 화해 없이는 아름다운 평화 통일을 바라볼 수 없다.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사회구조적인 통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의 통일이 미학적으로 중요하다.⁷¹⁾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서로간의 쌓였던 적대감, 불신, 그리고 맺힌 마음의 한을 화해의 윤리를 통해 풀어야 한다. 특별히 화해의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갈등과 분쟁을 넘어 용서와 치유로 이끄는 남북한의 새로운 화해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본다.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원수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 미학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따라가고 추구할 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십자가의 아름다운, 미학적인 사랑이다.

글을 마치면서 웬지 모르게 김민기의 〈작은 연못〉이라는 가사가 생각이 난다.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깊은 산 오솔길 옆/자그마한 연못엔/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아무것도 살지 않지만/먼 옛날 이 연못엔/예쁜 붕어 두 마리/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깊은 산 작은 연못//어느 맑은 여름날/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서로 싸워 한 마리는/물위에 떠오르고/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연못 속에선 아무것도/살 수 없게 되었죠

71) 임성빈(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윤리학 교수)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의 통일을 '땅의 통일'로 규정하면서 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통일을 '사람의 통일'이라고 주장한다. 임성빈, 『21세기 책임윤리의 모색』(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2002), 406.

주제어

미학적 남북통일, 이데올로기, 칼 마르크스, 알로이시우스 피에리스, 후안 루이스 세군도, 아다 마리아 이사시-디아즈, 화해의 윤리 (Aesthetic Reunification of Korea, Ideology, Karl Marx, Aloysius Pieris, Juan Luis Segundo, Ada Maria Isasi-Díaz, an Ethics of Reconciliation)

접수일: 2013년 11월 1일, 심사완료일: 2013년 11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26일

참고문헌

- 김용민 외. 『갈등을 넘어 통일로 - 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서울: 통일교육원, 2004.
- 김지하. 『미학강의: 예감에 가득 찬 숲 그늘』. 서울: 실천문학사, 1999.
- 고재식 편저. 『해방신학의 재조명』. 서울: 사계절, 1986.
- 임성빈. 『21세기 책임윤리의 모색』.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2002.
-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유경동. 『남북한 통일과 기독교의 평화』. 서울: 나눔사, 2012.
- 전태국. 『지식사회학 - 지배, 이데올로기, 지식인』.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7.
- 한완상. 『지식인과 허위의식』. 서울: 현대사상사, 1993.
- 한신대학교개교60주년기획위원회. 『한반도 통일논의의 쟁점과 과제』.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1.
- Ariarajah, Wesley. "The Challenge of Building Communities of Peace for All: The Richness and Dilemma of Diversities." *The Ecumenical Review* 57/2(April 2005), 124-136.
- Baum, Gregory. *Religion and Alienation*. NY: Paulist Press, 1975.
- Bent, Ans Joachim Van Der/연구홍 올김. 『WCC의 에큐메니칼 신학』. 서울: 동연, 2013.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0.
- Isasi-Diaz, Ada Maria. *Mujerista Theology*. Maryknoll, NY: Orbis Books, 1996.
- _____. *La Lucha Continues: Mujerista Theology*. Maryknoll, NY: Orbis Books, 2004.
- _____. "Reconciliation: a Religious, social, and Civic virtue." *Journal of Hispanic/Latino Theology* (May 2001), 5-36.
- Mannheim, Karl/임석진 옮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서울: 김영사, 2012.
-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On Religion*. N.Y.: Schocken Books, 1974.
- _____.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Selected Works In One Volum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0.
- Pieris, S. J., Aloysius. *An Asian Theology of Liberation*. Maryknoll: Orbis

Books, 1992.

Segundo, Juan Luis. *Liberation of Theology*. Maryknoll: Orbis Books, 1976.

_____. *Faith and Ideologies*. Maryknoll: Orbis Books, 1984.

Viladesau, Richard/손호연 역. 『신학적 미학』. 오산: 한국신학연구소, 2001.

**From a Concept of Ideology
to an Ethics Community of Reconciliation
–A Christian’s Search for the Aesthetic Reunification of Korea**

Sam Kyung Park
Assistant Professor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ucheon, Korea

Korea is the world’s only divided country. Communism, imperialism, capitalism, and the military rivalry between the two Koreas are the greatest obstacles to the reunification of this nation. The primary task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otion of ideology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To accomplish this task, the notion of ideology is discussed in the works of Karl Marx, Aloysius Pieris, and Juan Luis Segundo. For Marx, ideology is a false consciousness. He uses ideology in a negative sense to mean a rational justification of the status quo, or the unexamined theory behind immoral praxis. Unlike Marx, Pieris describes ideology as a worldview, that is, a framework used to understand and relate to the world. For him, a worldview is programmatic. For Pieris, the purpose of a worldview or ideology is to change the present disorder in the world. Segundo considered ideology to be the system of goals and means that serves as the necessary backdrop for any human option or line of action. In particular, Segundo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ideology.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ideology is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an ethics of reconciliation as a new praxis in the divided Korea. Regarding the notion of reconciliation in this study, the term is examined by focusing on the materials of Ada Maria Isasi-Diaz, a Cuban-American Christian Ethicist. For Isasi-Diaz, her paradigm are

1. reconciliation is about the future, not the past, about building a common future; 2. differences as good and positive; 3. dialogue as a praxis of reconciliation; 4. reconciliation as a religious, social, and civic virtue and as a mystique. In order to achieve the aesthetic reunification of Korea, I suggest an ethics of reconciliation i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It makes clear that reunification means reconciliation and that to accomplish this Christian must focus on a spirituality of Cross to have a reconciling practice between God and human being. Because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intrinsically linked to the way we relate to each other, a reconciling God cannot but ask of those who believe to have a reconciling attitude towards each oth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